

무주 구천동농협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교육 실시

공선출하회 회원 120여명 대상… 농업인 교육 편의도모,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증점

무주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숙)은 지난 14일 2016년도 새롭게 출범한 구천동농협 사과 공선출하회 회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무풍면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산지유통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과 구천동농협,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교육은 맞춤식 교육지원을 통한 사과 주산지 공선출하회의 활성화와 현장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교육 편의 도모,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은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오성진 과장 「공선출하회 육성방안」, 농업미아스터대학 김형수 강사 「토양관리 및 생리장애 예방」, 농협 안성교육원 고홍재 교수 「협동조합의 이해 및 조합원의 역할」 등 세개의 강좌로 나누어 4시간동안 진행됐다.

구천동농협은 전국 최고 탑프루트 사과주산지로 유명한 무풍·설천지 역을 관할하며, 지역의 사과를 처리해왔지만 경제사업장이 열악해 그

취급물량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2015년 11월 무주군 황정수 무주군수로부터 농신물 산지운영센터 운영권을 확보해 사과 선별 및 저장능력이 3배가량 늘어난 연간 최대 1,80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관내 생산량의 50% 이상을 사과공선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율며, 공선회 조직화 및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연계를 통해 상품성이 우수한 가운데 규모화된 유통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오성진 과장 「공선출하회 육성방안」, 농업미아스터대학 김형수 강사 「토양관리 및 생리장애 예방」, 농협 안성교육원 고홍재 교수 「협동조합의 이해 및 조합원의 역할」 등 세개의 강좌로 나누어 4시간동안 진행됐다.

불 브랜드를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이, 조직화되고 규모화 된 사과공선 출하회까지 출범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기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천동농협과 사과공선 출하회는 가는 화살도 여러개가 모이면 꺾이 힘들 듯 여럿이 협력하

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절전지훈(折箭之訓)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 협동조합정신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 품질의 사과를 생산 및 출하하는데 모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완산경찰서, 베스트 자율방범대 인증식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장하연)는 16일 혁신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장하면 서장과 유성남 전북도 연합자율방범대장 등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스트 자율방범대 인증식을 가졌다.

이날 베스트 자율방범대로 인증받은 완산경찰서 혁신자율방범대가 올해 도내 285개 자율방범대 중 봉사활동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베스트 자율방범대로 선정됐다.

혁신자율방범대는 혁신도시 내 3개 경찰서 관할 전체에 대해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강도·절도 예방, 학교폭력 예방, 부녀자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모범청소년에게 장학금 수여 등 경찰을 도와 지역치안 유지에 기여해왔다.

장하연 완산경찰서장은 “일선에서 협업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내 최고의 자율방범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LH 9단지 경로당 개소식

완주군 이서면(면장 정희정)은 16일 혁신도시 내 LH 9단지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한 송지용 도의원, 윤수봉 군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경로당 회원, 아파트 입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 축사, 현관식, 마술쇼, 중식제공 순으로 진행됐다.

LH 9단지 경로당은 130㎡ 규모로 28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회합의 공간이자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무더위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경로당을 개소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LH 9단지 경로당의 발전과 함께 앞으로도 완주군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주=이중복기자



완산동 주민센터, 주민들을 위한 공간 책 쉼터 조성

완산동 주민센터(동장 김길례)는 16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편의를 위해 민원실 1층에 ‘완산동 책 쉼터’를 조성했다.

‘완산동 책 쉼터’는 주민센터 민원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독서공간, 휴식 공간 인터넷공간을 조성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고 책 읽기 좋은 미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도서대여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길례 완산동장은 “완산동 책 쉼터는 책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독서 생활화 확산과 민원인 편의를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부안소방서 관내 기관단체장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부안소방서(서장 김원술)는 16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장:부안군수) 22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었다.

이날 교육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각 기관 단체장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전 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의 필요성을 홍보하려고 마련, 부안소방서 전문강사의 지도에 따른 이론교육 및 마네킹 실습 교육을 하여 교육 전달도를 높였다.

/부안=이옥수기자



덕진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유우종)은 16일 오후 퇴근시간에 맞춰 골든타임 5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덕진경찰서, 덕진구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전주종합경기장 일대 및 전북대 구정문 등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유우종 덕진소방서장은 “최근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량의 신속 출동을 위해 차량 주차 시 소방차량 통행 공간 확보하고 방해 시설물을 없애는지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수기자



효자3동, 이·미용 봉사활동

저소득 어르신들께 타월 100장도 전달

효자3동(동장 박병백)에서는 16일 관내 저소득층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 40여명을 초대해 성심사랑 봉사단(대표 김영숙) 주관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메타리더십 그룹 전북지부 초대회장으로 초대된 김성빈 회장의 기념티셔츠 전달식도 개최됐다.

메타리더십 그룹 전북지역 초대 동문회장으로 초대된 김성빈(유, 폴리테크 대표) 회장은 “작은 선물이지만 사랑과 정을 담아드린다”며 “멀지 않은 미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봄니, 의미 있는 일을 찾도록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박병백 효자3동장은 “각 분야 리더들이 교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희망하고 소통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가 확산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숙 성심사랑 봉사단 회장은 “이미용 봉사활동을 계기로 주변에서 어르신들에게 쏟아주시는 관심에 감사하고 봉사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박대용 중위,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 구조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로 추락한 승객을 현역 장교가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고는 지난 12일 저녁 7시 50분쯤 경기도 의정부 망월시역 승강장에서 65살 박 모 씨가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선로에 떨어져 일어났으며, 마침 부대 복귀를 하던 육군 3군 사령부 3동원지원호송단 박대용(25) 중위가 선로로 뛰어들어 시민들과 함께 박 씨를 구했다.



박대용 중위

특히 박 중위는 불안해하고 있는 환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조치를 하면서 박 씨를 돌봤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출혈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을 구한 박 중위는 2014년 원광대 군사학과를 졸업하고, 그해 학사사관 59기로 입관했으며, 임관식에서 교육성적 수석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인의 본분인 위국현신의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데 앞장사는 멋진 장교가 되겠다는 포부로 군 생활을 시작한 박 중위는 “군인으로서 괴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평소 군에서 실시한 간부교육이 시민을 구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옥신=정양원기자

김영량·김용태 대표, 대통령·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2016년 건설의 날’을 맞아 도내 건설업체가 대통령 표창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주)우미 김영량 대표는 현신적인 사회공헌사업과 국가의 공공 편의사업의 성실시공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여됐다.



김영량 대표



김용태 대표

또 (주)이엔씨 김용태 대표는 탁월한 경영능력과 품질향상,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명영기자

한국농어촌공 전주완주임실지사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참여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창호)는 16일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에 참여했다.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 실시된 금연클리닉에서 전주시보건소 상담사로부터 개인별 금연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일산화탄소(CO)측정, 니코틴 의존도 및 담즙형 금연방법을 제시 받았다. 또 금단현상을 최소화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금연 패치 등의 보조제를 제공받았다.

/신광영기자

군산시 농정과, 원예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군산시 농정과(과장 김성원) 직원들은 16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야면 광교리 소재 원예농장을 찾아 가지수확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돕기는 괴수, 채소 등의 원예작업은 기계화가 되지 않은데다, 농촌 고령화 및 젊은 세대의 이농으로 영농기 작업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 조금이나마 농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군산=문정곤기자